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OTHER WORDS FOR HOME

가제 : 다른 말 다른 집

저자 : Jasmine Warga

출판사: Balzer & Bray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베스트셀러 작가의 신간 / 채코 판권 계약

* “주드라는 어린 시리아 소녀의 주변에 층층이 쌓인 문화와 정체성, 두려움과 편견, 추방과 소속감이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대신 그 실체를 한 꺼풀씩 벗겨내는, 희망찬 이야기” - 베스트셀러 Ghost의 저자 제이슨 레이놀즈

인종차별의 역사는 참 길고도 잔인하지만, 중동 지역의 내란과 테러리스트 공격이 늘어난 이후 서구사회가 그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 중동 출신자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부감을 느끼고 멀리하려는 몰지각한 사람들의 태도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옮겨오고 아이들의 특성상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표현으로 드러난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같은 반 아이가 ‘중동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미국이 전부 폭탄으로 날려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현실, 소셜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교실 안에서 중동 출신의 아이들이 버젓이 듣고 있을 때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 현실을 직접 경험한 작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랍인이라는 사실을 내내 창피해하면서 살아야 했던 기억을 토대로 이 소설을 썼다고 밝혔다. 할로윈에 친구들이 중동 테러리스트 복장을 하고 나타나 자신들 이름은 모하메드라고 소개하며 낱낱이 대는데 그 이름이 작가 아버지의 실제 이름이었을 때, ‘신이 아랍인을 만든 건 실수다’라는 글을 시처럼 써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아이들과 같은 반에서 공부해야 했을 때 작가가 느낀 치욕스러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야 그 왜곡된 시선의 부당함과 거기에 휘둘려 출신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던 기억들은 모두 이 소설의 주인공 주드가 탄생한 배경이 되었다. 시리아에서 엄마아빠, 오빠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주드가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건너와 적응하려 애쓰면서 겪는 이야기들에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난민들의 이야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신선함이 담겨 있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들어 아름답기만 하던 현실의 진짜 모습에 눈을 떠 가는 주드가 그 시기에 경험하는 인생 최대의 혼란과 변화 속에서 자신만의 생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찾아가는 모습은 피부색, 인종, 재산이 아닌 한 사람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와 사람이기에 누구나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새삼 고민하게 한다.

주드의 아버지는 해안가 작은 가게에서 사탕과 과자, 음료수, 신문, 잡지를 파는 일을 했다. 여름이면 머나먼 도하나 다마스쿠스 등 대도시에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휴양지라 그 시기에 아빠의 가게에 놀러 가면 신기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꼬마 때부터 단짝인 파티마와 함께 아빠가 기분 좋으면 건네주는 과자 봉지를 들고 가게 뒤편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이 취미였던 주드는 늘 함께 그곳에서 노닥거리기도 하고, 집에서 미국 영화를 보고, 배우들 흉내도 내면서 놀았던 오빠 이사가 점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이사 오빠가 영화 대사나 농담 대신 민주주의, 자유,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권리 같은 말을 더 자주 입에 올리기 한 건 지역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과 친해진 뒤부터였다. 오빠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빠는 반동분자니, 반역이니 같은 말을 쏟아내며 오빠를 향해 고향쳤고, 오빠는 그런 아빠에게 국민을 버린 진짜 반동분자는 지금 대통령이라며 눈을 부라렸다. 주드는 마을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오빠의 그런 말들이 너무 무서웠다. 갈등이 깊어지자 결국 오빠는 집을 나가버렸고, 오빠 또래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벌이는 시위와 이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경찰, 군대의 싸움은 나날이 험악해졌다. 제발 옛날처럼 네 식구가 웃으며 저녁 식탁에 둘러앉을 날이 오게 해달라는 주드의 기도가 점점 실현될 가능성을 잃어가던 어느 날, 결국 주드는 엄마와 둘이서만 삼촌이 사는 미국으로 가게 된다. 동생을 임신한 엄마와 주드의 안전을 위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생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홀로 남은 아빠와 위태로운 시위에 모든 것을 바친 오빠를 남겨두고 엄마와 신시네티에 도착한 주드는 수십 번 돌려본 미국 영화에서 본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 시리아에서도 영어를 공부했고 동급생들에 비하면 제법 실력이 좋은 편이었지만 막상 미국에 오니 입도 뻥긋 할 수가 없었다. 발음은 물론 억양도, 단어도 미국 아이들과 너무 달랐고 그래서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의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다. 자꾸 움츠러들수록 파티마가 그리워진 주드는 일기를 쓰듯 길고 긴 편지를 써서 파티마에게 보내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도록 답장은 한 통도 오지 않는다. 삼촌과 결혼한 미국인 외숙모와 사촌동생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영어와 낯선 미국 문화를 열심히 익히기 시작한 주드는 멀쩡한 이름 대신 ‘중동 아이’라고 부르는 학교 아이들과도 잘 지내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인종이 ‘다르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느끼고 자신이 어떤 아이이건 그 차이 하나로 미워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된 주드는 크게 좌절하지만, 그 속에도 좋은 친구들이 있고, 따뜻한 사람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는다. 용기를 얻은 주드는 학교 연극 오디션에 과감히 도전하며 늘 꿈꾸던 연기자의 길로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다. 무겁고 어두울 수 있는 소재를 맑은 주드의 시선과 산문시 같은 형식으로 유려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자스민 와가(Jasmine Warga)는 20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My Heart and Other Black Holes』를 비롯해 『Here We Are Now』 등 십대들을 위한 소설을 여러 편 발표한 작가다.

제목 : PAN'S LABYRINTH
가제 : 판의 미로
저자 : Cornelia Funke, Guillermo del Toro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g
발행일: 2019년 7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 2006년 개봉된 영화 <판의 미로>를 소설로 만든 작품: 치열한 경매를 거쳐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계약 체결 -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판매 완료
- * “마법적 현실주의에서 탄생한 이야기이자, 진짜 마법사가 쓴 것 같은 이야기. 신비한 아이디어와 실제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사실 사이에 균형을 맞춘 것이 이 작품을 예술로 만든 핵심이다” - 「뉴욕타임스」, ‘비평가의 선택(Critic's Pick)’ 선정 이유

2006년 개봉된 후 동화적 상상력과 전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매혹적인 영상으로 절묘하게 조합한 걸작으로 큰 찬사를 받은 영화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 개의 열쇠>가 소설로 돌아왔다. 판타지의 고전으로 자리 잡은 당시 영화의 감독을 맡은 기예르모 델 토로와 베스트셀러 작가 코넬리아 폰케가 힘을 합쳐 완성된 이 소설은 특유의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생생하게 살린 멋진 일러스트가 더해지면서 한층 더 아름답고 생생한 이야기로 완성됐다. 1940년대 스페인 내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재혼한 엄마를 따라 외딴 숲에서 살게 된 오피리아가 꿈에도 몰랐던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면서 겪는 오싹하고 놀라운 모험은 파시스트 군의 대위로 점점 더 잔혹한 본성을 드러내는 양아버지 비달 대위와 전쟁의 참혹함과 어우러지며 환상과 차가운 현실의 경계를 계속해서 넘나든다. ‘판타지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기적과 공포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가장 날카로운 틀’이라는 오랜 믿음을 이번 작업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밝힌 코넬리아 폰케의 설명처럼 동화만이 선사할 수 있는 환상적인 분위기로 정치적 이슈와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례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이야기는 비달 대위의 아이를 임신한 엄마와 함께 깊은 숲으로 향하는 오피리아의 여행으로 시작된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부군과 반란군의 씬 없는 총돌에 위기를 느낀 엄마는 어린 딸을 위해 서둘러 재혼을 선택했다. 오피리아는 이제 열세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빠’라 불러야 하는 양아버지가 죽은 친 아빠와는 판이하게 다른 존재임을 일찍이 알아챘다. 흰칠하고 잘생긴 외모와 달리 두 눈 깊숙이 숨겨진 짐승 같은 잔인함, 그가 늘 걸치고 있는 회색 군복처럼 어두운 잿빛을 닮은 서늘한 심장이 오피리아에게는 그대로 느껴졌다. 속으로는 그를 ‘늑대’라 부른다는 사실을 엄마도, 그 누구도 모르지만 비달 대위는 절대로 아빠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엄마를 위해, 오피리아는 입을 꼭 다문 채 점점 창백해지는 엄마 곁에 꼭 붙어 앉아 비달 대위가 주둔 중인 숲 속으로 향했다. 여행 도중, 엄마가 정신을 잃을 지경에

이르러 잠깐 숲 한가운데서 멈췄을 때 오피리아는 이상한 생명체를 발견한다. 처음에는 잠자리나 나방인 줄만 알았던 처음 보는 그 생명체가 혹시 요정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왠지 확신은 들지 않았다. 그것이 앞으로 숲에서 벌어진 엄청난 모험의 시작이 될 거란 사실도 전혀 몰랐다.

해가 드는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내내 어둡고 으스스한 숲 속 생활은 흡사 새장에 갇혀 사는 기분이 들 정도로 갑갑하고 숨이 막혔다. ‘늑대’ 비달 대위는 갈수록 포악해졌다. 무질서와 혼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는 굵은 나무기둥 사이에서 언제 나타나 총을 쏘아댈지 모르는 반란군 때문에 한 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으르렁댔다. 그 사이, 배가 가느다란 몸으로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오른 엄마는 건강이 계속 악화되어 침대에 종일 누워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오피리아는 겉으로만 친절할 비달 대위와 늘 슬픔과 불안에 젖어 있는 엄마의 곁에서 벗어나 몰래 부대 근처 숲을 홀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숲의 요정 판과의 만남도 그렇게 이루어졌다.

판은 오피리아가 기억하지 못하는 전생과 운명에 대해 믿기 힘든 이야기를 전한다. 먼 옛날, 지하왕국에 살던 공주가 지상이 어떤 곳인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홀로 지상에 올라와 돌아다니다가 사라졌는데, 그 비극적인 운명의 주인공인 모안나 공주가 바로 오피리아라는 것이다. 지하왕국의 왕은 사랑하는 딸의 육신은 사라질지언정 영혼은 불멸하며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리라 굳게 믿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판은 오피리아가 보름달이 뜨기 전에 정해진 과제를 모두 해결한다면 원래 살던 그곳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럼 늑대처럼 잔인한 양아버지를 안 보고 살 수 있겠지?’ 오피리아가 판이 알려준 과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우고 고통도, 고민도 없다는 지하왕국에 가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하지만 과제가 다 적혀 있다며 판이 건넨 ‘선택의 책’은 열어보니 아무 것도 없는 백지만 가득하고, 오피리아의 모험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우여곡절 끝에 열쇠와 단검, 순결한 피를 찾아야 한다는 세 가지 과제를 하나씩 수행하기 시작한 오피리아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며 간신히 미로 같은 숲의 마법 세상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지만, 마침내 진동이 시작된 엄마가 남동생을 낳다 그만 목숨을 잃자 큰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갓 태어난 남동생과 자신이 해치워야 하는 세 번째 과제 앞에서 치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과연 오피리아는 어떤 선택을 할까? 두 눈을 사로 잡는 독특하면서도 섬세한 일러스트가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놀라운 판타지 소설이다.

<저자 소개>

기예르모 델 토로(Guillermo del Toro)는 영화감독이자 각본가, 프로듀서, 소설가다. 2018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The Shape of Water)>를 비롯해 <퍼시픽 림>, <쿵푸팬더 3>, <크림슨 피크> 등에서 감독, 각본을 맡았다. 골든글로브 감독상, 아카데미 감독상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코넬리아 폰케(Cornelia Funke)는 『Inkheart』, 『Inkspell』, 『Inkdeath』, 『The Thief Lord』 등을 쓴 베스트셀러 소설가다. 『The Thief Lord』와 『Inkheart』는 각각 2006년과 2008년에 영화로 제작됐다. 현재까지 발표한 소설은 35개 언어로 번역됐다.